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Successful Marriage Adaptation of Korean Husbands Who are Multicultural Families

정혜원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Hye-Won Jeong(hyewon2rang@pc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이 경험한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7명의 남편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편들은 '준비 안 된 결혼'으로 인해 '결혼생활 후회'까지 경험하지만 '자녀양육', '가사참여' 그리고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이 중재적 조건으로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사회복지 정책적으로는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제 준수, 방문지도사제도 확충, 남편을 위한 안내서 제작과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 비치배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 사회인식개선 제안과 사회복지 실천적 대안으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국내결혼 부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시부모와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남편들의 가사참여증대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남편들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 한국인 남편 | 성공적인 결혼적응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plore the main cause and effect of successful marriage that Korean husbands, who are multicultural families had. To do the research, the experiment has been done with 7 husbands for 2 months. The 7 husbands took depths interview and analyzed the result by grounded theory approach. As a result, the husband experienced 'repentance of marriage' because of 'unready marriage', but 'Raising children', 'Helping housework' and 'recognition from friends and colleague' have affected the husbands to have a successful marriage adaptation. Based on the result, a political and practical proposal has been proposed to the Korean husbands who are multi-cultural family. Here are the examples of the proposal. As a social welfare policy, 'obligation of information offering for prospective spouse', 'following the Labor Standards and parental leave', 'expansion of visiting supervise system' and 'making guidance for husbands and distribute map of Immigration Offic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Community Center' have proposed. And as an alternative plan for a practical social welfare policy and continuous social awareness improvement, 'various education program', 'a program with domestic married couple', 'a program with parents-in-law', 'a specific program to increase the housework participation for husbands' and necessity of development and practice of group program for husband have been emphasized.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y | Korean Husband | Successful Marriage |

I. 서론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세계적 추세와 함께 결혼적령기의 성비 불균형과 1990년대 초부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서서히 늘기 시작하여 2004년 이후에는 전체 혼인건수 가운데 국제 결혼률이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국제결혼은 총 22,462건으로 한국 내 전체 혼인건수에서 7.4%로 2014년 강화된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근 몇 년간 10% 이상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혼인 건수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 수는 174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결혼이주자들은 약 15만 명으로 외국인 주민의 8.7%를 차지하고 있다[1]. 이처럼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사실을 반영하듯 국제결혼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예로 2015년 한 해 동안 다문화 가정이 이혼한 경우는 11,287건으로 그 해 결혼 건수인 22,462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이혼을 급등이라는 현실은 다문화 가정에 있어 부부간의 갈등과 적응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다문화 가정의 부적응에 대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결혼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의 공통점은 주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에 적응하는 연구[2-5], 남편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5-9],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연구[4][10][11],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12] 그리고 배우자 및 가족지지[13][14], 사회적지지[11][15] 등에 관한 연구인 반면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인 남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오히려 많은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는 국제결혼의 피해자이고, 한국인 남

편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강자인 반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제해결 능력도 부족한 가해자[6]로 편견과 낙인을 부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 증가에 따른 부부중심의 결혼생활과 맞벌이 부부 증가로 결혼생활에서 남녀역할분담을 중요시 여기는 최근 결혼추세에 발맞춰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 남성들 역시 성장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 출신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16]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65점으로 일반국민(3.37, 2014 사회조사)보다 오히려 높고, 배우자 관계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9점으로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부정적인 문제와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긍정적인 건강함도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과정과 그 과정에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내인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가정을 이루는 또 다른 한 중요한 주체인 한국인 남편들의 관점과 경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심으로 한국인 남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17-24]들이 시작되었으나 대부분 한국인 남편의 생애사, 생활경험, 재혼, 의사소통 혹은 결혼의미를 다룬 것으로 결혼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하다. 그럼으로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의 결혼과정과 그 과정에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현재 결혼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통해 생활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등 결혼적응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한국인 남편들의 성공적인 결혼 적응과정을 밝혀내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등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또는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혼혈인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의 새로운 개념이다. 즉, 가족 구성원 간에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순수혈통, 가부장 단일 문화주의를 고수하면서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며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동인 '혼혈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주며 차별적으로 대해왔다. 이렇듯 국제결혼으로 이뤄진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 가정(족)'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의 제안으로 '다문화가정(족)' 또는 다문화가정(족) 2세'로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되는 국제결혼은 세계화에 따라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증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혼인 적령기를 놓친 농촌 지역의 미혼 남성 위주로 국제결혼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혼 시장에서의 성별 불균형에 더해 독신이나 만혼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신부감 부족 현상은 도시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에서의 국제결혼 비율도 늘어났다[25].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세 단계를 거쳐 확산되었는데 1990년대 초 중국과 수교 이후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행사'의 일환으로 조선족 여성들이 대거 유입한 것이 첫 단계이며, 일본과 필리핀, 한족 등 특정 종교의 신도로, 또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이 두 번째 단계이며, 2000년 이후 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여성들이 사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대거 입국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26]. 이처럼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된 원초적 동기는 우리나라 남성의 혼인성비 불균형과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활동 증가가 도시인구 집중과 맞물려 농촌남성과의 결혼기피 현상으로 인한 결혼수급의 불균형이라 하겠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4년 이후 10년 동안 전체혼인 건수에서 국제 결혼률은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라 하겠다. 즉 공통된 언어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조선족이나 영어사용이 가능한 필리핀 국적의 아내보다 우리 사회에서 낯선 언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태국 국적의 아내들과의 의사소통곤란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결혼 이전에 경험했던 자국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상호간 접촉함으로써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및 차이로 인한 문화충격을 경험한다. 특히 중개업소나 종교단체가 개입되면서 결혼과정이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결혼과정 또한 매우 급박하게 이뤄짐으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 습득은 물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27]. 셋째, 경제적 빈곤이다. 결혼이주여성 대다수의 결혼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하지만 이들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맞물려 결혼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들을 시초로 대부분 소득수준이나 직종에 있어 결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0.4%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100~200만원이 23.8%, 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6.5%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가구소득 437만원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다. 다문화가정이 경험하는 육아 및 자녀교육에서 겪는 곤란은 위에 언급된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이라 하겠다 [29][30]. 이와 같은 특징으로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로 맺어진 가정과는 다른 어려움과 곤란으로 결혼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결혼적응(한국인 남편의 결혼 적응)

결혼이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으로 살아온 두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 및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은 인생의 주기에서 서로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복잡하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어려운 생활사건이다[31]. 적응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개체가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경과 개인의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이라는 환경 안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여성들이 먼저 서로 간 적응을 하며 동시에 부부가 속한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이란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결혼적응은 결혼성공, 결혼만족, 결혼행복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며[32] 부부적응 이라고도 한다[33]. 결혼적응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 과정으로 결혼생활의 여러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또는 정도를 말하며[34] 또한 결혼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갈등을 부부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부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한다[35]. 결혼적응은 결혼의 질, 결혼 성공성, 결혼 성공, 결혼 만족도 등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데 결혼적응 수준이 높으면 결혼의 질 수준이 높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높은 수준의 결혼행복감과 관계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34]. 특히 다문화가정의 결혼적응에는 의사소통, 가치관, 개인특성, 가족특성, 문화적응 태도, 사회적 편견, 성역할 특성, 경제적 특성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5].

그동안 결혼적응에 대한 연구 대상은 여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성분리화와 성불평등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결혼생활에서의 결혼불만족, 갈등, 결혼부적응 등의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36]. 다문화가정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정폭력이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더 많이 직면하는 관계로 여성중심의 연구들이 주를 이

루었다[5][7][37].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결혼이기에 결합의 순간부터 문제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둘째,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셋째, 가부장적 가족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 및 지지자원의 부재라 하였다[15]. 반면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학력이 낮은 나이가 많은 남자들, 결혼을 매매혼적으로 간주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부장적 문화와 생활방식을 강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가출, 이혼 심지어 자살을 하게 만드는 가해자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21]. 하지만 최근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 남성들의 입장을 반영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들도 새로운 변화와 어려움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성장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고한다[17-20][22][23]. 최지영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은 결혼의 의미를 ‘결혼: 시원섭섭함’,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 이해와 오해’, ‘정보와 도움의 부족: 산 넘어 산’, ‘변화와 극복: 그래도 희망을 바라봄’으로 도출하였다[24]. 그리고 엄명용은 한국인 남편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그동안 주변화 되었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재탄생하는 삶의 전환을 맞이했다고 하였다[23].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과정을 연구한 이호준은 결혼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신과 출산, 처가방문, 언론보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임을 밝혔으며[19], 공수연·양성은은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남편의 적응과정에서 이들은 결합, 혼돈과 적응의 시기를 거쳐 조화로운 정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선택한 전략은 적극적인 태도, 문화차이 인정하기, 조율하기, 효율적인 역할분담하기 등이었으며 특히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여성과의 권력분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학력 그리고 주도성이 조화로운 정착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밝혔다[38].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에 관해 연구한 김인선·배화옥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 수준은 보통 이상이며 문화적응태도, 가

부장적 태도, 아내의 본국 송금에 대한 태도, 아내의 사회시설 이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혼적응 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 태도와 아내의 사회시설 이용에 대한 태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20].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정의정·하규수는 이중문화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밝혔다[22]. 그리고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한국인 남편을 연구한 임춘희는 한국인 남편들이 재혼을 통해 인생 중반기에 생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았으며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였다[21]. 이와 같이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도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자신의 삶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한국인 남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로 결혼을 통해 갖게 된 삶의 의미나 변화 혹은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며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는 저조한데다 5년 이상 된 연구들이다. 특히 성공적인 결혼적응을 이룬 한국인 남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질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인 남편들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어떻게 적응하여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적응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결혼적응이 개인의 중요한 생애사건인 결혼을 통해 사적으로 이뤄지는 경험이므로 그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질적 연구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39].

III. 연구방법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세계를 보는 것이다. 즉 질적 연구는 의미와 이해가 목적이고, 개념을 맥락의 복잡성속에서 구체적으로 취급하며, 일상적

행동을 구체적 맥락과 함께 기록하고 그 행동의 의미를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40][41].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이 경험하는 성공적인 결혼적응 과정을 밝혀내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으로 본 연구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 중 경험의 과정을 심층 탐색하여 실체를 잘 설명하고, 풍부한 결과물을 생산하여 새로운 지식 창조와 실무를 안내하는데 유용한 근거 이론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42].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연구과정

본 연구 참여자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진행하였으며 다원화 방법에 의해 가능하면 다양한 경우의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은 연구의 폭보다 깊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이론적으로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적합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을 U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사회복지사의 협의를 거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센터에서 진행하는 배우자 대상 프로그램에 협조적인 사람, 둘째, 센터 실무자들을 통해 부부사이가 좋고 결혼만족도가 높은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의 다원화 방법(triangulation)을 사용한 자료 수집으로 연구 참여자의 배우자 국적을 다양하게 하여 가능한 여러 나라의 배우자 경험을 듣고자 하였다.

이 중 개별적 접촉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고지한 후 본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하여 연구일정과 연구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으로 최종 7명을 선정하였고 면접 이후 추가로 연락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을 다문화가정 한

국인 남편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매우 결혼생활에 적응적인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부사이가 좋다는 것은 결혼이주 여성인 아내의 한국생활 적응에 매우 협조적일 경우 이뤄지는 것이며 한국인 남편 자신들도 가정의 중심적 구성원으로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며 적응하는지 그 과정을 찾아내어 이미 다문화가정을 이뤘거나 혹은 미래의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의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개인적 적응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하기에 비교적 성공적인 적응노력을 한 남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30대가 1명, 40대가 4명 그리고 50대가 2명이었다. 결혼기간은 최소 2년 반 최대 12년이었고 결혼경력은 한명을 제외하고 참여자들 모두 초혼으로 자녀는 모두 한명 이상 두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7명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는 [표 1]과 같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A, B, C... 등으로 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나이	직업	배우자 국적	결혼 기간	결혼 경력	자녀 수	결혼 경로
A	51	컴퓨터 매장	베트남	11년	초혼	1남 1녀	결혼 정보업체
B	49	우유 대리점	캄보디아	8년	재혼	1남	지인
C	53	전문직종 직업연계	중국	12년	초혼	1남 3녀	연애 (회사지 부발령)
D	48	회사	베트남	9년	초혼	2남	결혼 정보업체
E	36	병원 관련 전문직	태국	2년반	초혼	1남	연애 (유학중)
F	45	버스기사	중국	10년	초혼	2녀	친척
G	46	공무원	캄보디아	3년	초혼	2녀	결혼 정보업체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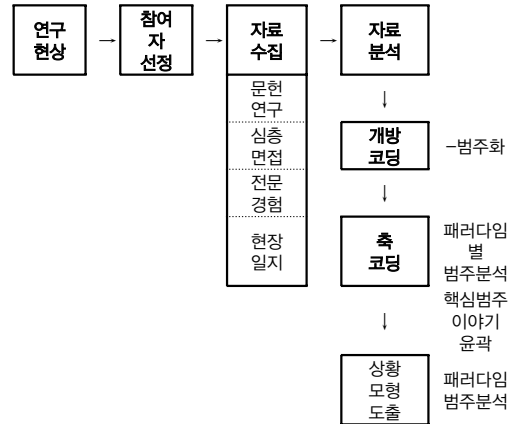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진행과정

2.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으나 최대한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면접시간은 1회당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 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과정,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결혼적응 과정, 연구 참여자의 자녀 양육 및 집안일의 참여 내용이다. 둘째, 결혼 후에 어려웠던 점과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조언이다. 연구 참여자에 따라 1회에서 3회 정도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찾집이나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면접이 끝난 이후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하고 보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7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면접하며 녹음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연구자가 직접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근거이론 연구에서 주요한 자료는 말(words)을 의미하기 때문에[43][44]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심층 면접 시 녹음을 하고 중요한 사항은 현장노트에 기록한 것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후 수집된 내용과 정리된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먼저 아무런 제한 없이 범주(Category)들을 설정 및 검토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과정은 근거이론의 범주분석(Category analysis)의 개방적 코딩방법[45]을 통해 개념→하위범주→범주로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 연구의 타당성 검증

연구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Guba & Lincoln이 제시한 4가지 기준 즉,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그리고 중립성에 입각해 시행하였다[46]. 사실적 가치를 위해서 심층면접만이 아니라 별도의 추가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적용가능성은 연구 참여자들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료수집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2~3회에 걸친 면접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분석을 마친 뒤에도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념과 범주명이 현상에 잘 드러내고 있는지 물어보는 확인과정을 거쳤다. 일관성과 연구의 객관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등 세 명의 전문가들 간 분석의 삼각화 과정인 분석적 삼각화(analyst triangulation), 관점적 삼각화(perspective triangulation)를 거쳤다. 끝으로 중립성은 앞의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될 때 획득되는 종합적 기준[46]이기에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자료의 범주화

근거이론에서 연구결과는 맥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다차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어떤 한 맥락의 일부분으로 나타난다[47]. 개방코딩의 목적은 속성과 차원에 따라 현상을 발견하고, 특징에 따라 개념을 이름 짓고 그것을 범주화하는 것이다[45].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근거된 자료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과 사물, 작용/상호작용을 밝혀내어 이를 추상화하여 범주화 시켜 25개의 범주를 도출시켰다. 연구에 있어 사건과 일어난 일들 사이가 항상 명료하지는 않고 범주들 간의 연결고리가 아주 미묘하고 내재적일 수 있기에 드러나는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 하는데 도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조직적 도식 중 하나가 패러다임(paradigm) 모형으로[42]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1.1 인과적 조건 : 준비 안 된 결혼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거나 발생하도록 하는 사건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준비 안 된 결혼’이 중심현상인 ‘자녀양육 어려움, 일상생활 갈등, 결혼생활 후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말하는 ‘준비 안 된 결혼’이란 ‘배우자 문화와 생활습관 몰이해’와 ‘언어장벽’ 등 2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첫째, 참여자들은 공식적인 결혼중개업체를 통했든, 사적으로 소개를 받았든 상관없이 ‘배우자 문화와 생활습관 몰이해’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다.

동남아 쪽이 전형적으로 이야기 하는 목소리가 작든지, 목소리가 커지면 자기 생명을 위협한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더라구요. (참여자 G)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의 문화가 있고 여기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이쪽이 생각하면 또 제가 말이 안 된 경우.. 굳이 말한다면 좀 게을러 한다면지, 더운 나라가 조금 게을른 건 있나 봐요.

(참여자 B)

만약에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 나라, 꼭 국제결혼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라던가 또 어느 나라랑 하고 싶다면 그 나라에 대해 좀 알아보고, 그 나라 문화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준비를 좀 하고.. 그러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참여자 D)

진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나아요. (참여자 A)

업체에서는 무작위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알 수 있나요. (참여자 G)

한국문화에 좀 적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강조한 적이 많았어요. 한국에 왔으니 한국생활에 따라라... (참여자 C)

이렇듯 참여자들은 같은 나라, 같은 언어 그리고 같은 문화와 가치, 생활습관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란 배우자를 맞이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고자 하는 동기도 의욕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자는 결혼하면 집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삼종지도(三從之道)’ 등을 강조했던 우리 사회의 전통적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참여자들의 의식에 잔존해 있고 더불어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은 결혼 전 배우자 나라의 문화와 생활습관 등을 잘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참여자들은 중개업체 위주로 이뤄지는 결혼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 모두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웠음을 밝혔다. 즉, ‘언어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배우자들은 중국인 2명, 캄보디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그리고 태국인 1명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출신이 아니다 보니 공통된 언어가 없어서 서로 간 의사소통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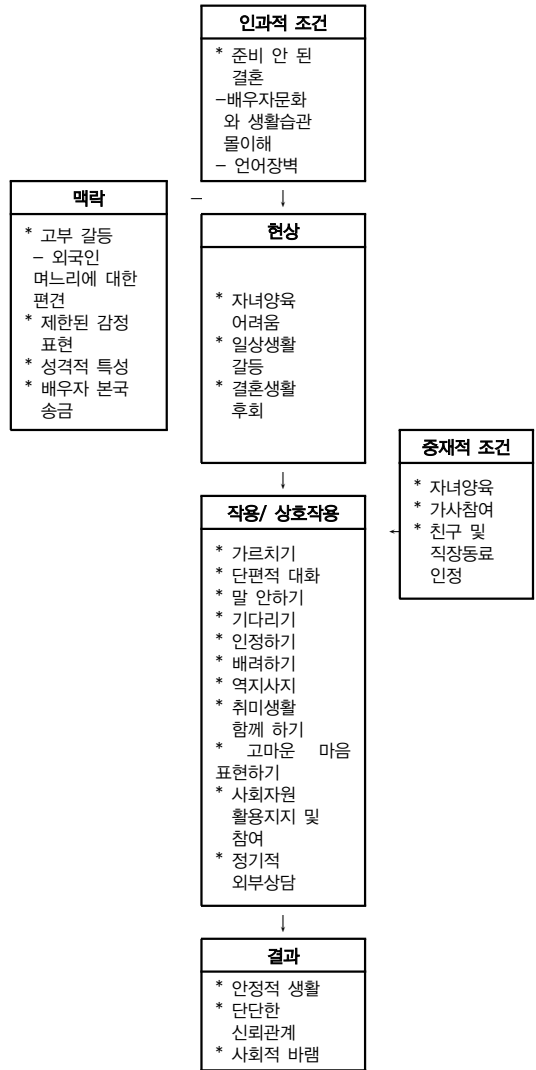


그림 2.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한국에 와서 한국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적응하는 동안 한국말을 못하니까 모든 한국에 대해서 제가 대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참여자 C)

무슨 말하면 거기다 대고 대꾸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거기 뭐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갈등에 대해서 뭐 참다 참다 못하면 나중에 많이 울고. (참여자 G)

먼데서 왔구 처음이구 말은 안통하고 저도 해주

려고 해도 조금 뭐라 해도 여자가 움추려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참여자 A)

참여자들이 인지한 것처럼 ‘언어장벽’으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국 땅 낯선 환경에서 두려움과 긴장으로 예민해진 결혼이주여성인 배우자는 쉽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불협화음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갈등상황을 발생시키고,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을 갖게 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교류하지 못함으로 부부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결혼생활 자체에 후회를 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2 현상 : 자녀양육 어려움, 일상생활 갈등 그리고 결혼생활 후회

현상이란 어떤 작용, 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중심생각이나 사건들이다. 참여자들이 겪는 현상으로는 다문화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자녀양육 어려움’과 ‘일상생활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누적되면서 참여자들은 ‘결혼생활 후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과적 조건인 ‘언어장벽’으로 인해 ‘자녀양육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라 해야 하나. 말부터, 말부터 대부분 늦어요. (참여자 A)

가정통신문 가져오면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무슨 단어라는 것을 읽을 줄은 아는데 뭔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여자 F)

엄마가 안고 키우다보니 말이 아무래도 늦어요. 늦어도 많이 늦고.. (아이들 학부모 상담) 제가 가요. (참여자 D)

이와 같이 ‘언어장벽’은 자녀의 말 배우기에도 어려움을 줄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교생활 지도에도 어려움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언어습득 지연은 학습과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한국인 남편에게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즉, 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배우자 나라의 문화와 생활습관 몰이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갈등을 느끼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문화와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만 없을 뿐 아니라 문화동화주의적 자세와 자문화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생활 속 사소한 상황에서도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제가 챙겨야 되니깐. 택시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뭐 어디 뭐 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봐야 되요. 또 확인해야 되니까 이해는 잘 해요 근데 현실은 답답하죠. (참여자 C)

싸울 때 간혹 가다가 외국 그 나라에서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걸핏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이러는데 거참. (참여자 B)

먹는 게 젤 힘들었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만들기도 하는데 첨엔 우리 음식 전혀 먹지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내가 이거 결혼을 했나 마누라가 있는 건가 싶었어요. (참여자 A)

사소한 거.. 과일을 깎는데 우리처럼 안 깎구 밖으로 이상하게 깎더라구요. 그땐 그게 틀리다 잘 못됐다 생각해 잔소릴 좀 했어요. 내 방식대로 하라고 한 거죠 뭐. (참여자 G)

셋째,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언어, 문화, 생활습관 등에 대한 정보와 준비 없이 시작한 결혼’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면서 ‘결혼생활 후회’라는 위기상황을 경험하였다.

전 절대로 안합니다. 외국 사람하고 앞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선택한 거니까 참고 사는데 다시 결혼하려면 저기 절대로 외국 사람하고 안합니다. (참여자 C)

진짜 초기에 매일 그랬어요. 매일. 제가 매일 혼자 잠자기 전에 생각하고 화장실 갔을 때도 생각하고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나 고민을 계속 거의 그랬고요 거의 매일이 그랬어요. (참여자 G)

결혼했기 때문에...(중략)... 그럼 후회가 되죠. (참여자 E)

1.3 맥락

맥락이란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전후관계나 상황을 말한다[45]. 현상인 ‘자녀양육 어려움’, ‘일상생활 갈등’ 그리고 ‘결혼생활 후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는 ‘고부 갈등’, ‘제한된 감정표현’, ‘성격적 특성’ 그리고 ‘배우자 본국 송금’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 속에서 살아온 외국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면서도 상대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공통된 언어가 없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는데 곤란을 겪는 한국인 남편은 결혼이주여성인 배우자와 시댁, 특히 한국인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와의 갈등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이 ‘부부간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가 된 결혼이주여성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한국사회안에서 한국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고부갈등’과는 달리 며느리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되는 배타성과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에 대한 선망의식은 인종적 편견을 갖게 하여 백인만 환대하고 동남아권 외국인은 멸시하는 이중적인 차별을 하게 하였다. 특히 차별의 주요인인 민족 동질성은

피부색으로만 단순하게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38]. 또한 피부색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편견으로 외국인 며느리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인 남편들은 ‘효’라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꼭 모셔야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배우자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합의 하에 분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인 남편의 태도는 공수연·양성은의 연구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38].

집사람이 많이 참고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면 그리고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까지 안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집사람이 캄보디아 나라에서 왔고 학력도 좀 낮고 그 다음에 피부색갈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어머니가 봤을 때 약간. (참여자 C)

저랑은 처음엔 편견이나 그런 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이랑.. 어머니께서 “중국 사람이니까” 그런 편견 같은 거 있으셔서 좀 힘들었어요. 두 사람이 힘드니 괜히 저까지 이도저도 할 수 없어 힘들었어요. (참여자 F)

어머니하고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만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따로 살았고, 어쩌다 한번 보니까, 매일 보면 싸우게 되는데 2~3주에 한번 가서 한 두 시간 보니까 서로 맞추더라구요.. (참여자 B)

시부모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중개를 했죠. 근데 저도 중국말을 할 수 없으니까, 서투니까 그 저기 좀 교감이 조금 잘 안되죠 뭐. 그래 싸울 일이 많았죠. (참여자 C)

이렇듯 피부색과 인종 그리고 가난한 나라 출신에 대한 시어머니의 비하와 몰이해, 몰인정으로 고부간 갈등을 빚

게 되고 이는 곧 부부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참여자들은 부부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제한된 감정표현’ 즉, 속 깊은 감정표현 혹은 전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인간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부부관계도 타인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부부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도 결혼이주여성인 배우자도 상대방 나라에 대한 언어습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하려다보니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피상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생각뿐 아니라 감정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깊어지는 사랑과 존경, 인정 등 내밀한 긍정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다보니 부부간 관계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서로간 이해의 폭이 좁다보니 일상생활의 사소한 차이도 갈등상황으로 발전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말해도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데 집사람은 감정 표현을 못 넣는 거라.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그 맘을 모르겠는 거라. 부부간 정도... (참여자 A)

서로 얘기하는 게 감이 다르다고 하죠? 그게 많죠. 근데 그 차이가 굉장하죠. 대화는 없어요. 그냥 의사전달만. 그때그때 감정들이, 그 교류가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안 좋은 얘기에 비유하지만은 마네킹이랑 하는 거와 같죠. (참여자 C)

셋째, 참여자들의 ‘성격적 특성’ 또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부부갈등의 주된 원인을 성격차이(34.7%)라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무뚝뚝한 성격’, ‘과격함 성격’, ‘보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일상생

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성격적 특성’이 배우자와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호준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들은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을 언어와 문화차이보다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19]. 즉 언어와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몫이며 자기는 그 시간동안 참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성격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언어와 문화차이 극복의 책임을 배우자에게만 돌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 갈등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좀 무뚝뚝하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참여자 C)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해서.. 제가 이혼하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한 적은 있죠. (참여자 D)

제가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50도 넘었으니 세대차이가 난다고 하나.. 나이차이도 있고 보수적이다 보니 처음부터 좀 힘들었어요. (참여자 A)

넷째, ‘배우자 본국 송금’은 참여자들의 결혼생활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일 뿐 아니라 참여자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편들은 결혼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의 본국 가족에게 송금을 약속하는데 웬만한 수입이 아닌 이상 한국인 남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송금에 대한 부담은 부부갈등을 야기시키며 특히 송금에 대한 합의 부족과 인식 차이는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20].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재산과 지위에 대한 권리와 혈통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계승되는 양변제라는 가족체계의 전통을 갖고 있어 여자도 가족부양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기에 결혼이주 여성은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지원을 요청하는데 이는 한

국민 남편에게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사람은 그쪽에 보태주고 싶어 하고 나는 지금 못 보태주고.. 집사람은 엄마 아프면 가자하고.. 그런 거 조금 트러블이 생기고 한동안은 좀 냉각기 말도 잘 안하고 뭐 이런 식이니. (참여자 A)

뭐 다달이 10만원씩 보내준다는 등 이런 소리가 많은데 저는 뭐 일수 찍는 것도 아니고.. 다달이 10년을 보낸다 하면 일 년이면 120만 원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딱 보내라? 때때로 내가 지갑에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괴롭죠. (참여자 D)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이십 만원 보내 줬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당연이 다음에도 줄 거라고 의지한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힘들어요. (참여자 G)

집사람 힘들었죠. 한국에 와서 사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즉각 즉각 돈 벌어오는 그런 게 아니어서 힘들었죠. (참여자 C)

1.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재적 조건은 ‘자녀양육’, ‘가사참여’ 그리고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1~2년 이내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고 참여자 7명 중 5명은 두 자녀 이상을 두었으며 한 자녀를 두고 있는 참여자 2명 중 1명은 둘째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한국인 남편은 ‘자녀양육’에 있어 방관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녀양육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려 지금은 좀 덜 하는 것 같구요. 처음에 왔을 때 곧장 애 넣고 정말 엄청나게 신경 많이 썼죠. 그때는. (참여자 D)

평일은 네~다섯 시 이후에 해요. 왜냐면 어린이 집에 가니까요. 저녁에 같이 놀아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참여자 E)

저는 그다지 많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이 만족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자주 놀아주려고 노력하고요 학습지인가 그것도 해요. 집사람이 아직 말이 서툴다보니. (참여자 F)

같이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참여자 G)

이처럼 참여자들의 ‘자녀양육’ 동참은 배우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부부간 더욱 긴밀한 교류의 기회가 되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녀양육’뿐 아니라 ‘가사참여’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가사참여는 배우자의 만족을 높이고 그 모습을 본 참여자도 만족하여 서로의 관계가 동반상승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자녀양육’과 ‘가사참여’라는 생활 속 경험은 작용/ 상호작용에서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배려하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부부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상호간 결혼적응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계기가 된다.

상당히 참여합니다. 음식, 설거지 다 잘합니다.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집사람도 좋아하구. (참여자 C)

집사람이 많이 피곤하고 하면 아침에 못 일어나

요. 그러면 아침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줄 때마다 집사람이 굉장히 감격을 하더라고요. (참여자 F)

같이 설거지, 빨래도 하구요 분리수거는 제 담당 예요. (참여자 G)

셋째, 참여자들에게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은 참여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구성원, 친인척, 친구 그리고 이웃 등 주위로부터 받는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는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19][20][32]. 참여자들은 친구 혹은 직장동료들이 자신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정과 지지를 표현해줄 때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 대해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며 배우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작용/ 상호작용에서의 ‘배려하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로 이어지게 되며 결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저희 회사 사람들도 저희 집사람을 잘 알아요. 항상 보면 “야 너 장가 잘 갔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딴어?”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정말 기분 좋죠. (참여자 F)

친구들이랑 결혼생활 얘기할 때 바가지, 바가지가 없어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참여자 E)

1.5 작용/ 상호작용

작용/ 상호작용은 경험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절하고 수행하고 반응하는데 사용하는 대응전략으로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특성이 있다. 본 연구자는 작용/ 상호작용을 개인 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으로 살펴보았다. 각 차원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차원은 크게 부정적 상호작용(가르치기, 단편적 대화, 말 안하기)과 긍정적 상호작용(기다리기, 인정하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배려하기, 역지사지,

취미생활 함께 하기)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에 부정적 상호작용인 ‘가르치기’를 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결혼이주여성인 배우자 나라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활습관 등에 대해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보다는 한국 사람과 결혼했고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 문화와 언어, 생활습관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다보니 일방적인 ‘가르치기’에 집중하였다. 배우자의 욕구와 수준을 무시한 일방적인 ‘가르치기’는 결혼이주여성인 배우자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한 한국인 남편인 참여자들에게도 실망과 좌절의 경험을 갖게 하여 부부간의 대화가 오히려 줄어들어 ‘단편적 대화’를 하게 하고 나아가 ‘말 안하기’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험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책도 카세트도 나름대로 갖다 주고, 천천히 얘기했다가 못 알아 들으면 목소리 커지고 목소리 커지면 싸우고 울고 그랬죠. (참여자 G)

한번 말 하구 두 번 말 하구 답답하죠. 말이 안 통하니. 뭐 그러다 나중에 뭐 말 안하구 시행착오였구.. 정말 힘들었어요. (참여자 F)

좀 게을러요. 더운 나라는 그렇지 좀 게을러 정리 정돈이라든지.. 자꾸 말하게 되고. (참여자 C)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의사소통만 하죠. (참여자 C)

일하고 와서 피곤해도 또 붙들고 앉아 공부 가르치고 밤 12시 1시까지 컴퓨터하면서 오만가지 다 가르쳤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참여자 D)

부정적 상호작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리기’라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정하기’, ‘배려하기’, ‘역지사지’, ‘취미생활 함께 하기’ 더 나아가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더니깐요. 적응하는 동안. (참여자 C)

넌 너 방식, 난 내 방식. 서로 고집하지 않고 서로 인정해주면. 근데 막 여기 한국이다 한국방식 따라 해라, 싫어 나 얘기 때부터 이거 했는데? 이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그러면 이거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국가대 국가하고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니네 나라 이런데 우리나라 이렇다. (참여자 B)

굳이 꼭 그렇게 내가 맞고 니가 틀리다가 아니라 어~ 다른 거네. 과일을 안이 아니라 밖으로도 꺾네. 생각 차이죠. (참여자 G)

저 믿고 왔는데 제가 처음처럼 제 뜻대로만 하면 속상할거고.. 그렇죠 웬만하면 제가 양보를 해요. (참여자 F)

좀 숨통은 터줘야겠다고 해서 인터넷이든 어디든 찾아 제가 다 신청서 작성하고 부모님 초청해서 오셨어요. (참여자 G)

나도 적응하고 변해야 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애들도 데리고 다니고 같이 즐기고 하다보면 말하지 않아도 친근감이 생기고 집사람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참여자 B)

이런 부분은 고맙다 라고 이야기 하고 항상 장난이라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 정말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처음엔 말도 안 통해 많이 울었지만. (참여자 G)

참여자들은 중재적 조건인 '가사참여'라는 경험을 통해 배우자의 문화와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상황 표출(말 안하기, 다툼 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배우자의 있는 모

습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배우자 입장을 '역지사지'하고 '배려'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라는 행동으로 실행하면서 부부간 긍정의 경험이 찾아지게 되었다. 또한 '취미생활을 함께 하기'로 결혼생활의 즐거움을 더해갔다. 이러한 생활 속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의 축적은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지역사회 차원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인 '사회자원 활용지지 및 참여'와 '정기적 외부상담'이라 할 수 있다. 결혼 초 결혼이주여성인 배우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인 남편인 참여자들은 개인 차원의 전략으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일방적인 '가르치기'는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쌓기도 전에 오히려 부부간 불신과 회의를 갖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자신이 직접 '가르치기'를 시도하면서 부부간 갈등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어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정보검색을 통해 다문화센터 등 외부 기관이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즉 배우자 '가르치기'에서 배우자의 '사회자원 활용 지지'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배우자의 만족을 높이지게 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사회자원 활용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인 배우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참여자 자신도 '사회자원 활용 참여'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공동의 경험으로 삶의 만족을 느끼고 이는 결혼적응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정기적 외부상담'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지지 특히 남편의 지지는 결혼적응 수준 혹은 결혼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자아존중감을 강화시켜 결혼적응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48].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에 대해 연구한 김인선·배화옥 연구에 의하면 아내의 사회시설 이용에 지지적 태도를 지닐수록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 수준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즉 한국인 남편이 결혼적응을 잘 할수록 아내의 사회시설 이용에 지

지적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문화센터, 복지관에 가는 게 집사람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만에 그게 좋겠다 싶었어요. (참여자 G)

한국말을 많이 배우라고 제가 그 다문화 센터라든가 한국어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다니라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집안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고 배우고 하는 걸 집사람도 좋아하고.. (참여자 C)

센터 같은데 프로그램 있으면 참석하고, 얼마 전에는 요리대회도 같이 나갔어요. (참여자 B)

제가 여기 소개시켜줘 다니라 했어요. 집안에서 안 통하는 것보다...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참여자 E)

국제결혼사무실이 가까워서 수시로 가고 다른 분들도 수시로 오세요. 무슨 고민이 있으면 거기서 만나 사장님이란 얘기해요. (참여자 G)

1.6 결과

결과는 작용/ 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를 말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작용/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 생활’, ‘단단한 신뢰관계’, ‘사회적 바램’이라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 적응 결과를 ‘안정적 생활’과 ‘단단한 신뢰관계’ 그리고 가정 밖의 지역사회관계에서의 적응 결과를 ‘사회적 바램’으로 나누었다.

첫째, 가정안에서의 부부관계 적응결과로서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 배우자와의 문화차이, 언어장벽 등을 경험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방적인 문화적 동화요구 등을 철회하면서 ‘인정하기’와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등의 행동표현으로 서로가 안정감을 경험하고 참여자

스스로도 결혼생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가정을 이룬 것 자체만으로도 결혼에 대한 만족을 표하기도 하였다.

남편들도 똑같이 노력해야 해요. 그러면 아내도 더 강해지고... (참여자 G)

저를 믿고 왔으니까 저도 믿어야죠. 서로 믿어 주면 그걸로 다 만사형통인 거 같아요. (참여자 F)

한국에선 이렇게 하면 안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제일인 거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나라 가면 마찬가지로 일테고.. 서서히 변해야지 그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다보면 싸움만 나고 힘들어 지더라구요. (참여자 B)

한국 왔으니 한국생활 따라라가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남편 되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갈등만 생기더라구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 있는 그래도 인정하는 것이 부부간 최고인 거 같아요. (참여자 C)

결혼하고 좋은 거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작정 우리 부모님이니 잘해. 이게 아니라 해주는 만큼만 해주면 되요. 웬만하면 장인 장모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요. 집사람이 좋아하고 고마워해요. (참여자 D)

노력했던 거는 그거죠. 그냥 믿어주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참여자 F)

이와 같은 작용은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단단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 밖의 지역사회관계에서의 적응결과로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서는 가

정안에서의 개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사회와 국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바램'을 공통적으로 말하였다.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차별에 대한 인식변화와 복지서비스 확충 및 적극적인 홍보, 언어로 인한 학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도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우선적 채용'한다거나 '다문화가정이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홍보'의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람들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대국 나라와 약소국 나라에 대한 차별이. (참여자 E)

주변에 일용직 나가는 사람 많아요. 복지관에 올 시간도,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어요. (참여자 C)

국민소득으로 무시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쓰고 백인이면 우러러 보고 영어는 쓰는데 백인이 아니면 어? 하면서 위아래 훑어보고 원숭이 보듯이... (참여자 G)

법으로 회사에서 사람을 구할 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비율을 정해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청자가 많으면 성적순으로 따르면 되잖아요. 결혼해서 사는데 애도 있고 아마 더 책임감 있게 (이주노동자보다) 일 할 거예요. (참여자 G)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이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성공적인 결혼적응으로 이르는 과정을 밝혀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등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준비 안 된 결혼'으로 인해 '자녀 양육 어려움', '일상생활 갈등' 그리고 '결혼생활 후회'를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고부 갈등', '제한된 감정표

현', '성격적 특성' 그리고 '배우자 본국 송금' 등이 맥락적 요소로 작용하여 현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갈등상황에서 참여자들은 개인 차원의 부정적 상호작용인 '가르치기', '단편적 대화', '말 안하기'와 긍정적 상호작용인 '기다리기', '인정하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배려하기', '역지사지', '취미생활 함께 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으로 '사회자원 활용지지 및 참여' 그리고 '정기적 외부상담'이란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안정적 생활', '단단한 신뢰관계' 그리고 '사회적 바램'이라는 결과에 이르며, 이 과정에는 '자녀양육', '가사참여' 그리고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이 중재적 조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의미는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정을 분석한 구차순의 연구[49]와 한국인남편의 결혼적응 과정을 분석한 이호준의 연구[19]와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이 하나는 결혼이주여성이고 하나는 한국인 남편이었지만 두 연구 모두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중심현상으로 '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인과적 조건에서 중심현상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여성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 남편이나 결혼이주여성이나 모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결혼하여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갈등' 현상에 '혼돈'과 '고립'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한국인 남편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도 중심현상에서 '일상생활 갈등'을 경험하고 나아가 '결혼생활 후회'라는 '위기'를 느끼는 것으로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낯선 곳에서 혼자 적응하다보니 혼돈과 고립 등 개인적 차원의 갈등을 겪는 반면 한국인 남편들은 맥락적 요소로 확인된 것처럼 고부갈등 그리고 배우자 본국 송금으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느끼는 자괴감과 손상된 자존심으로 인해 결혼자체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차원의 위기가 아닌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으로 빚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인 남편

들의 결혼적응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적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당당히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이루는 넓은 의미의 적응이라 하겠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으로 한국인 남편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남성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19][20][32]를 확인한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남편들에게 결혼적응이란 부부 차원의 적응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도 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라 하겠다. 또한 참여자들은 결혼 초 배우자 나라의 문화, 습관 등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는 한국문화와 습관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다 보니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갈등을 양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방적 시기를 어렵게 지내면서 서서히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안정된 생활과 단단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성공적인 결혼적응을 이루게 되었다. 즉, 한국인 남편이 배우자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일수록,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일수록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19][20][50][51]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종합하면,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은 ‘준비 안 된 결혼’으로 ‘결혼생활 후회’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남편들을 성공적인 결혼적응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한 긍정적 상호작용인 ‘기다리기’, ‘인정하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배려하기’, ‘역지사지’, ‘취미생활 같이 하기’, ‘사회자원 활용지지 및 참여’와 이러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 ‘가사참여’ 그리고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과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의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사회복지 정책적 제언

사회복지 정책적 차원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자녀양육’, ‘가사참여’,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 ‘사회자원 활용지지 및 참여’, ‘정기적 외부상담’ 등이며 또한 지역사회관계에서의 적응 결과인 ‘사회적 바램’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적 책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중개업체의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은 결혼적응 갈등의 원인이 ‘준비 안 된 결혼’임을 밝혔다. 즉, 성공적인 결혼적응을 위해서는 배우자 문화와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결혼중개업체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이 ‘자녀양육’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인 남편의 가사분담은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기업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지도사제도를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방문지도사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를 지도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상담 등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인 남편들의 역량강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더욱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이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녀양육’과 ‘가사참여’, ‘사회자원 활용지지 및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대안과 방법들을 가족발달주기에 맞춰 안내서를 제작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여 배포함으로써 부부갈등예방 및 성공적인 부부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인식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바램'은 다문화가정 차별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불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되 특히, 국영방송 및 지방 언론들이 앞장서서 계몽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

한국인 남편들을 성공적인 결혼적응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한 긍정적 상호작용인 '기다리기', '인정하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배려하기', '역지사지', '취미생활 같이 하기', '정기적 외부상담'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차원의 제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을 이룬 한국인 남편뿐 아니라 예비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배우자 나라에 대한 문화와 언어 교육, 송금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르치는 다양한 의사소통기술 교육, 배우자의 사회자원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교육 등 갈등예방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배우자의 문화와 생활습관 등을 인정하고 역지사지하는 경험은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해 부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정만이 아니라 국내결혼 부부와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의 결혼적응은 부부간 적응만이 아니라 사회 적응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정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 중 하나로 수용함으로 국내결혼 부부와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는 각종 프로그램에 시부모와 가족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은 '고부갈등' 즉, 시어머니의 위

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 등이 갈등 현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이 부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줌으로서 성공적인 결혼적응을 위해서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의 인식변화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인 남편들의 가사참여증대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천이 필요하다. 자녀양육, 언어 가르쳐주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세탁, 분리수거, 취미생활 같이 하기 등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남편들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요구된다. 보수적인 한국인 남편 특성상 개별상담참여가 낮으므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점으로 집단프로그램 참여자 중 정기적인 상담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참여자의 거주지가 경기북부에 제한되고 참여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공적인 결혼적응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시각을 통해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므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최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생애주기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면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에 더욱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국제결혼통계자료, 통계청, 2015.
- [2] 김상임,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이주여성센터, 2004.
- [3] 양순미, 정현숙,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가족학회지, 제11권, 제3호, pp.223-252, 2006.
- [4] 최정혜,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4호, pp.29-46, 2011.
- [5] 김오남,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6] 박재규, 이윤애,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2005.
- [7] 최금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제72권, 제1호, pp.143-188, 2007.
- [8] 남인숙, 장흥성,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제35권, pp.7-31, 2009.
- [9] 장운정, 박정윤, “결혼이민자 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 및 문화 적응태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21권, 제2호, pp.1-27, 2009.
- [10] 김기문, *대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대전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08.
- [11] 남인숙, 안숙희,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99-108, 2011.
- [12] 류한수,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345-356, 2016.
- [13]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pp.253-266, 2015.
- [14]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221-235, 2013.
- [15] 김오남, *결혼이민자 가족의 이해*, 경기도, 집문당, 2008.
-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17] 김민경, “국제결혼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3호, pp.179-211, 2009.
- [18] 이근무, 김진숙,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pp.135-162, 2009.
- [19] 이호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과정,” 아시아교육연구, 제11권, 제4호, pp.119-143, 2010.
- [20] 김인선, 배화옥,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3호, pp.1-21, 2012.
- [21] 임춘희,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재혼의 의미,” 인간발달연구, 제21권, 제1호, pp.89-113, 2014.
- [22] 정의정, 하규수,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222-231, 2012.
- [23] 엄명용,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4호, pp.261-298, 2010.
- [24] 최지영,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6권, pp.225-254, 2009.
- [25]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0.
- [26]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05.
- [27] 박주희, 정진경,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 제4호, pp.395-432, 2007.
- [28] 양순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지원 정책개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 pp.78-84, 2006.
- [29] 우은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원 요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30] 서정아,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31] 안영미, *다문화가족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2] 송지현,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3] 안진경, *다문화가정 부부의 적응역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34] Spanier, "The measurement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Vol.5, No.3, pp.288-300, 1979.
- [35] 김봉주, *다문화가정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6] 이영숙, 박경란, "기혼남성의 성격유형, 갈등대처 방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75-286, 2009.
- [37] 박재규, "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관련 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16권, 제2호, pp.427-442, 2006.
- [38] 공수연, 양성은, "다문화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01-117, 2011.
- [39] 구차순, 박순자, "국제결혼 남성의 결혼해체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3호, pp.45-74, 2012.
- [4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1*, 서울 문음사, 2008.
- [41] 조용환,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경기도 교육과학사, 2008.
- [42] A. Strauss and J. Co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2001.
- [43] E. Sherman and W. J. Reid,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 [44] 이승민, *다문화 여성의 초등학생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생과 행복을 위한 감인대의 삶*,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45] A. Strauss and J. Co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1998.
- [46] E. G. Guba and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81.
- [47] J. F. Gilgun, G. Daly, and G. Handel, Eds., *Qualitative method in family research*, Newbury Park, Calif.: Sage, 1992.
- [48] 김민정, 현명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남성 화병 증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9-33, 2010.
- [49]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50] 김인철,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1] 장은정,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저 자 소 개

정혜원(Hye-Won Jeong)

정희원



- 198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학사)
- 1999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석사)
- 2011년 2월 : 한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아동, 가족, 다문화)